



networks

IP 기술 총동원! 단말기 사업으로 진격!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

다산네트웍스가 매출 1천억원 돌파에 힘입어 IP 단말기 사업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초고속인터넷장비 시장에서 독보적 존재로 군림해온 다산네트웍스의 쉬지 않는 도전은 벤처정신의 전형을 보여준다.

● 국내 초고속인터넷장비 1위 업체인 다산네트웍스는 지난해 1290억원의 매출과 150억원의 경상이익을 기록했다. 통신장비업계에서 '비의 고지'로 불리는 매출 1000억원선을 돌파하고 세 자릿수의 흑자를 달성했다는 낭보는 다산네트웍스 임직원들을 한껏 고무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의 적자를 털어버리고 흑자로 전환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4년 적자 청산하고 흑자 전환 성공

"매출 1000억 달성이 지멘스 효과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지멘스의 자본인수 덕에 재정 안정과 이미지 후광효과를 얻긴 했어도 그것이 비즈니스 자체에 기여한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기반을 다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좋아지면서 한국과 일본 시장도 덩달아 호조를 띠었다는 게 남민우 대표의 설명이다. 작년부터 시장 사이클이 침체를 지나 성장세로 돌아섰고 앞으로 2~3년은 시장 상황이 괜찮을 전망이다. 실제로 다산네트웍스는 기술력과 제품력만으로 일본 시장에서 2003년 100억원대, 2004년 340억대, 2005년 약 500억대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시장의 전반적 호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데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한다.

현재 다산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IP 기술은 세계가 인정할 수준이다. 지멘스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제치고 다산네트웍스를 세계적인 R&D 센터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해준다. 뛰어난 기술력은 다산네트웍스가 10여 년간 술한 고비를 넘기고 국내 최정상급의 네트워크 장비회사로 우뚝 서게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다.

"적자가 계속되던 지난 4년 동안에도 매년 전체 매출의 10~20%를 R&D에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R&D 인력을 늘려나갔습니다. 지멘스의 투자 이후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3년 말 200명에 불과하던 인력이 현재 520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 300명 이상이 R&D와 품질·기술 인력이지요. 진정한 투자는 연구개발에 달렸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경영 원칙인 셈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하고 국내외 시장에 진출한 독심이야말로 매출 1000억원 돌파의 숨은 주역이나 다름없었다.

IP 기반 단말기 사업 진출

올해는 통신방송 융합이 전 세계 통신시장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통신 사업자들은 대대적인 통신망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통신장비업체는 이를 2000년 밀레니엄 버그 이후 5년 만에 맞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산네트웍스도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품라인을 다양화하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IP 기술을 총동원해 새로운 사업 진출을 노리는 것이다. 우선 국내시장에서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를 위해 고도의 QoS(Quality of Service) 기능이 강화된 제품군들을 신규로 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시장, 특히 유럽시장을 위해서는 ADSL2+와 VDSL2를 지원하는 IP-DSLAM 제품군들을 대규모로 출시할 계획이다.

"올해 IP 휴대폰, IP 셋톱박스 등 IP 기반의 각종 단말기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지멘스 채널을 이용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재미도 갖췄습니다. IP 기술에 관한 한 누구보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단말기 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세계적인 브로드밴드 업체로 부상하겠다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다산네트웍스. 불굴의 의지로 시련을 이겨내고 인생역전,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 벤처기업의 행보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초고속인터넷 장비는 물론, IP 기반의 단말기에서도 다산네트웍스의 이름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날이 실현될 것이기에 말이다.



IP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군 구축 다산네트웍스 제품라인



V5424G Gigabit Ethernet Aggregation Switch

일반적인 LAN 스위칭이 제공하는 단순한 기능 외에도 고급 QoS, 속도 제한, 보안 ACL(Access Control List), 멀티캐스트 관리, 고성능 IP 라우팅과 같은 업계 선도적인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SSH(Secure Shell) 기능을 구현해 관리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보안성을 향상 시킴으로써 권한이 없는 관리자의 접근을 차단해준다. SFP 타입의 서비스 포트를 24개까지 지원해 탄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Link Aggregation과 MSTP(Multiple Spanning Tree) 등이 신속하게 장애복구를 지원하므로 안정성과 가용성이 향상되는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의 구현을 지원한다.



VoIP Phone H415G

일반 전화의 편리함과 부가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기본형 인터넷전화. 그래픽 한글지원 LCD를 통한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기능 설정 및 상태 확인을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손쉽게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 외에 Phonebook 및 Speed Dial 기능을 제공하며, VMS(Voice Mail Service), CFA(Call Forwarding Always), DND(Do Not Disturb) 기능 버튼을 제공한다. 전화기에 PC를 연결해 인터넷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을 제공해 대기업, 중소기업, SOHO, 관공서 등 대부분의 업체에서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IP-STB H910

가정에서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해 TV에 연결시키는 셋톱박스(STB)는 크게 케이블 TV용, 위성방송용 디지털 지상파 방송용으로 분류되며, 최근 들어 초고속 인터넷망의 발전과 더불어 IP STB가 부각되고 있다. IP STB는 광대역 네트워크와 TV 세트 사이를 연결해주는 특화된 장치로서 TV 화면에 인터넷을 구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더라도 쉽게 인터넷 정보 검색 및 전자메일을 교환할 수 있는 분리형 단말기를 말한다. IP TV, VoD, Web browsing의 기능을 갖춘 IP-STB H910은 사용자 지향의 인터페이스, 사용자·서비스 인증을 통한 보안, 그리고 다양한 VOD 서버 플랫폼과의 호환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V5817S Shelf-based Multi-Platform IP-DSLAM

전화선을 통해 기본 데이터, 비디오 및 음성 서비스를 인터넷 인터페이스와 연동하여 제공하는 네트워킹 솔루션이다. 전용선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예산으로 강력한 보안 및 향상된 QoS(Quality of Service) 기능 등을 제공해 초고속 인터넷 통신, VoD, 원격 진료, 온라인 게임, 채팅,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고품질의 라스트 마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최근 고속의 인터넷 기술과 방송제도, 소비자 변화에 따른 통합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유선통신 및 방송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TPS(Trip Play Service) 애플리케이션 처리에 적합한 최적의 통신 망을 구축한다.



V5810S Shelf-based Multi-Platform IP-DSLAM

V5810S는 인터넷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수 많은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로 기존 전화선을 이용해 ADSL2+(24/1M), GSHDSL(2.3/2.3M), VDSL(100/100M), VoIP(POTS & ISDN)의 다양한 브로드 밴드 네트워킹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또한 이중 구조와 이중 관리 아키텍처를 실현해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Shelf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안정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인터넷 가입자가 많은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궁금하다! 다산네트웍스 브레인

IP 셋톱박스 개발한 다산연구소 하드웨어팀 이용석 수석



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업체들이 개발한 PC 베이스의 고가격에 큰 사이즈 사양을 배제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결국 아담한 크기의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면서도 저렴한 가격의 IP 셋톱박스(IPTV)를 개발하게 됐다.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 가격의 심박자가 어우러진 덕분에 현재 일본 및 유럽 등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Q : 개발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A : IP 셋톱박스라는 단말이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한 제품이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을 앞서나가는 제품을 개발한다는 데 따른 부담감이 컸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할 여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정보나 개발 노하우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큰 편이었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 수시로 터지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일주일도 일화, 수, 목, 금, 금으로 지나갈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난 뒤의 기쁨으로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은 느낌이다.

Q : 앞으로 꼭 개발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가?

A : 케이블 셋톱박스를 개발해 보고 싶다. 영화 속에서는 TV를 보면서 동시에 화상통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는다. 마지않아 그런 일들이 실생활에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다산의 연구소에서는 당장이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바라는 점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IP 셋톱박스와 더불어 다산네트웍스의 모든 장비들을 세계 최고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Q : 직접 개발한 IP 셋톱박스에 거는 기대는?

A : 현재의 시장이 그리 크진 않지만 각 언론매체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폭발적인 시장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때 업계 선두기업인 다산네트웍스의 네트워크 장비와 더불어서 IP 셋톱박스가 당연히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Q : IP 셋톱박스 개발 당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나?
A : 개발 당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저가격의 고품질 단말을 요구하는 현재 시장상황에 부응하는 것이